



즉시 배포용: 2017 년 3 월 6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MTA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경찰이
펜실베이니아 역에서 낙서로 증오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 체포 발표**

MTA 경찰서 잠복근무 시행, 다수의 낙서 범죄에 나치당 기호 그림이 포함

**편견 혹은 차별 불만에 대한 신고는 무료 상담 전화 (888) 392-3644 혹은 81336
번에 문자로 "HATE" 전송**

Cuomo 주지사는 오늘 펜실베이니아 역(Pennsylvania Station)에서 상습적으로 편견이 담긴 낙서를 한 용의자가 체포되어 일련의 증오 범죄로 기소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그 어떤 형태의 편견과 차별에 대해 뉴욕은 절대 용서하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체포와 기소는 증가하는 증오 범죄와 반유대주의에 대응하는 주의 적극적인 조치를 강조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체포 사건은 모든 증오 범죄에 철저한 수사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했으며 검거된 용의자들이 저지른 이런 비열한 행위에 대해 전부 기소할 것입니다. 우리는 뉴욕이 대표하는 가치와 정반대인 이런 편견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MTA 경찰서가 이번 수사에서 보여준 경각성과 조치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MTA 경찰서(MTA Police Department) 수사관들은 어제 펜실베이니아 역 남자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증오 범죄성 낙서와 기물파손에 대한 감시 작전을 펼쳐 화장실칸 파손 용의자를 체포하였습니다. Pasquale Vargas 라고 신원이 밝혀진 65 세의 이 용의자는 브루클린(Brooklyn)에 삽니다. 경찰서는 Vargas 가 2 월 18 일부터 펜실베이니아 역에서 발생한 다수의 편견이 담긴 낙서 범죄의 용의자라고 믿습니다.

Vargas 는 뉴욕주 법에 따라 4 급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8 개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추정된 범죄 행위의 특성과 상황에 근거하여 이 혐의들은 증오 범죄(E 급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Vargas 는 경찰에 체포된 후 조사에서 그가 낙서한 원인은 “멕시코인이 미국인의

일 자리를 빼앗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Vargas 가 이밖에도 2 월 18 일부터 펜실베이니아 역에서 발생한 다수의 낙서에도 혐의가 있다고 추정합니다. 기타 낙서에는 검은색 마킹펜으로 두 곳에 나누어 쓴 “KKK”와 “멕시코인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Mexican Go Home)”는 문구가 포함됩니다.

MTA 경찰서장 Owen Monaghan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MTA 경찰과 주 경찰청을 포함한 주 전역의 법 집행 협력기관은 모든 증오 범죄가 법의 심판을 받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조사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중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빠져나갈 궁리를 말아야 합니다.”

지난달부터 시작한 감시 계획의 일환으로 조사관들은 Vargas 가 벽에 낙서를 남긴 펜실베이니아 역의 남자 화장실에서 잠복 수사를 펼쳤습니다. 이전에 화장실 칸막이에는 낙서가 없었습니다. 조사관들은 기물파손의 혐의로 Vargas 를 멈춰 세우고 그의 배낭을 검사한 결과 칸막이에 사용한 것과 같은 재질의 검은색 Sharpie 마커 펜을 발견하였습니다.

증오 범죄에 대처하는 주의 조치

Cuomo 주지사는 지난해 11 월에 주 경찰청 증오 범죄 단속반(State Police Hate Crimes Unit) 설립을 명하여 잠재적 증오 범죄에 대한 조사 및 기타 법 집행기관의 조사에 대해 지원하게 하였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무료 상담 센터를 세워 주 전역에서 차별, 편견에 따른 위협, 괴롭힘 및 폭력 등 편견과 차별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편견이나 차별을 당한 뉴욕시민은 무료 상담 전화 (888) 392-3644 번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월~금, 오전 9 시~오후 5 시. 또는 81336 번으로 “HATE”라는 문자를 보내셔도 됩니다. 주에서는 증오 범죄에 대한 체포와 판결에 도움을 주는 정보 제공자에게 5,000 달러의 상금을 드립니다.

또한, Cuomo 주지사는 신념, 신앙 혹은 전도 행위로 인해 증오 범죄나 공격 위험에 처한 뉴욕의 학교 및 탁아소의 안전 및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2,500 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설립하였습니다. 이 보조금 프로그램은 추가적인 보안 장비와 교육 자료에 자금을 지원하며 국토보안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에서 관리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